

로어통신적언어행위성립의 전제

김 강 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합니다.》(《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단행본 8~9페이지)

현시기 통신언어학을 비롯한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것은 언어학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어통신적언어활동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교제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기관, 기구, 인원과 기술수단들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통신적언어활동까지 포함할수 있다.

이 글에서는 로어통신적언어행위가 이루어지자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로어통신적언어행위는 무엇보다먼저 자연적정황과 통신적언어정황이 조성될 때에 성립되게 된다.

자연적정황은 언어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언어정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언어행위가 성립될수 없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다들게 되는 정황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람들이 서있는 버스정류소, 사람들이 붐비는 상점과 시장, 즐거움이 차넘치는 유원지 등은 자연적정황으로서 거기에 사람들이 없다면 언어행위가 이루어질수 없다.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도 모임장소에서 말하는것을 언급하는것과 같이 말할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있지 않다면 언어행위도 불가능하다.

누구든지 첫 말을 때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통신적언어정황이 없는것으로 된다.

조성된 정황에 따라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언어정황으로 될수 없다. 반드시 시작된 말이 있어야 이러저러한 입말반응을 일으키는 언어정황으로 되면서 차후의 언어행위, 통신적언어행위로 전환된다.

로어통신적언어행위는 다음으로 언어학적규범과 교제참가자들의 지향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게 된다.

통신적언어정황이 조성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인식된 언어학적규범과 교제참가자들의 지향이 같지 않다면 언어행위가 이루어질수 없다.

언어학적규범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연적정황에 부딪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여야 하며 인식적수준이 대등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레: Вход в клинику охранял дряхлый дед, одетый в черную форму. На груди у него золотом горел знак «Охранное агенство 〈Ястреб〉». Тут зазвонил телефон. Бравый вояка ухватил трубку и сообщил: -Охрана, Хомяков. Здравия желаю,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Кто пройти должен? Федекина Е.С.? Пушу непременно, не сомневайтесь. Повесив трубку, он уставился на меня.

-Пропуск.

-Посмотрите по списку. Моя фамилия Федекина.

-Да-да, только что звонили. Вам на второй этаж.

Я проскользнула сквозь железные

воротца и не сдержала любопытства:

-Простите, а каких хомяков вы храняете?

-Чего говоришь? Не пойму.

-Ну, вы сняли трубку и ответили: «Охрана Хомяков».

-Фамилие мое такое, Хомяков, вот и сказал, как положено: «Охрана, Хомяков». Никак в толк не возьму, чего тебе надо, а?

(대학부속병원입구를 검은 제복을 입은 늙은이가 지키고있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야스페르브(매)경비대》표식이 금빛으로 번쩍거리었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위풍있는 용사는 수화기를 들고 보고했다.

-보위대 호마꼬브입니다. 건강을 축하합니다, 뽀뜨르 쎄묘노비치. 누구를 들여놓아야 한대구요? 페데킨 예. 에쓰라구요?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녀려마십시오.

수화기를 놓고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통과중.

-명부를 보시지요. 내 성이 페데킨입니다.

-예, 예, 금방 전화가 왔지요. 2층으로 가시지요.

나는 미끄러지듯 철문을 통과하였다. 호기심을 억제할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어떤 호마꼬브(게으름뱅이)들을 보위하는지요?

-무슨 말인지? 리해못하겠는걸요.

-그래, 당신이 수화기를 들고 《게으름뱅이보위대》라고 대답하지 않았나요.

-내 성이 그런걸요. 호마꼬브, 그래서 《보위대, 호마꼬브》답게 말했지요. 절대로 리해못할게 없지요. 그래 뭐가 필요합니까?)

우의 실례에서는 《나》로 등장한 인물과 경비원 호마꼬브의 인식적수준이 같지 않은것으로 하여 《나》가 정황판단을 잘못하고 대방을 대함으로써 대화가 실패하고 창피를 당하고말았다.

가령 로씨야거리의 대중집합장소에 로씨야사람과 로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모여 있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언어통신(교제)활동이 이루어질수 없다. 또 언어소유수준이나 제시된 주제인식수준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도 언어행위로 이어질수 없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한 듣는 사람의 반응에서 지향이 일치할것을 요구한다.

예: Сцена в зоомагазине.

-У вас есть витамины для крысы? - раздался капризный детский голос.

- Витамины для крысы имеются?

-повторила элегантная дама в красивой шубке, очевидно, мама девочки.

-У нас Филя заболел, лысый стал! Ему надо витамины давать, -бесхитростно сообщил ребенок.

-Так есть для грызунов таблетки? -настаивала мать, обращаясь к нереагирующей продавщице, которая наконец весьма апатично ответила:

-Нету.

-А что-нибудь для крысиного здоровья? Ну, там мази, капли, присыпка...

-Ничего, -буркнула торговка.

-Совсем? Может, все-таки постараетесь помочь?

-За углом магазин «Сад и огород», там для крыс отраву продают.

-Не хочу отраву, -испугалась

девочка. Дама разозлилась.

-Безобразия! Пойдем отсюда! А витамины купим в другом магазине, в хорошем, а не в этом.
(동물상점에서의 장면)

-여기에 쥐비타민이 있나요? -응석이 섞인 어린애의 목소리가 울렸다.

-쥐비타민이 있어요? -멋진 털외투를 입은 아릿다운 귀부인이 되물었다. 처녀애의 어머니인듯 했다.

-우리 휠라가 앓고있어요.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비타민을 먹여야 해요.

-어린애가 꾸밈새없이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설치류용알약이 있나 말이에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판매원을 향해 그 어머니가 다우쳐물었다. 판매원이 드디어 무심결에 대답했다.

-없어요.

-쥐를 치료할 뭐든지 있지 않을까요? 저 고약이나 물약, 분무약...

-아무것도 없어요. -판매원이 투덜거렸다.

-전혀 없다구요? 아무튼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फल목뒤로 돌아가면 《정원과 남새밭》상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쥐약을 팔지요.

-독약은 필요없어요. -처녀애는 놀랐다. 귀부인은 약이 울랐다.

-빌어먹을것! 가자! 다른 상점에서 비타민을 사자. 좋은 상점에서, 이 상점이 아니구.)

우의 실례에서 실험용으로 기르는 쥐를 치료하는 비타민을 살 동물상점에 온 구매자와 판매원사이에 언어행위는 이루어졌지만 판매원의 불친절성으로 인한 대화회피로 하여 구매자의 노력은 허사로 되고 구매자는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상점을 떠난다. 즉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한 듣는 사람의 반응에서 지향이 일치하지 못하여 대

화가 끊어지고만다.

로어통신적언어행위는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언어레절이 보장될 때에 성립되게 된다.

언어교제, 언어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언어레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황을 잘못 판단하여 레절없는 말을 하거나 대화상대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언어행위는 시작도 폐지 못하거나 설사 시작을 떼었다 하여도 중단되고만다.

다음의 레를 보자.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Я предлагаю провести беседу за «круглым столом» и обсудить проблемы экологии.

-По-моему,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аше поведение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Кто хотел бы конкретизировать эту мысль?

-Позвольте мне.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конкретно это может выразиться даже в том, чтобы не протекали краны в квартире, не горели напрасно лампы.

-Интересно. А какое мнение у других участников беседы?

-По-моему это ресурсбережение и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е, чем защита природы.

-Кто хочет возразить?

-Разрешите мне. Вы совершенно правы. Конечно, это скорее ресурсбережение, но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что ресурсы чистой воды исчерпаемы.

-Вот именно. Это звучит убедительнее.

(-여러분! 나는 좌담회에서 생태학문제를 논의할것을 제의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누가 이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수도물이 필요없이 흐르지 않게 하고 전등을 쓸데없이 켜놓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될수 있다고 봅니다.

-흥미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자연보호보다도 자원절약과 에네르기절약입니다.

-반대의견이 있는분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원절약이지만 깨끗한 물자원은 무진장하지 않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로씨야사람들과의 교제에서는 민족적풍습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여러가지 레절이 있다.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교제가 끊기지 않고 대화가 이어질수 있는것은 미안감을 표시하는 разрешите, позвольте 등과 같은 표현으로 언어레절을 지켰기때문이다.

이외에도 언어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전제에는 정황에 따르는 자기 행동의 교정

및 조종능력과 같은 언어활동주체의 지적능력, 통신적언어행위예측능력, 외부로부터의 간접적영향 등이 있다.

이 모든 언어행위성립의 전제조건들은 서로 교차되면서 언어행위에 영향을 준다.

례: -Как вы считаете,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лантливый музыкант?

-Я бы не хотел обсуждать это. Мы старые друзья, и этим все сказано.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람이 정말 재능있는 음악가인가요?

-난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하오. 우린 오랜 친구인걸요. 이것으로 우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우의 실례에서 말하는 사람이 상정시킨 어떤 인물이 음악에서 진짜 재능이 있는지 타진하려는 물음에 대하여 듣는 사람은 그의 의도를 예측하고 그와 딱친구라는것으로 일축하여버림으로써 대화가 중단되었다. 즉 교제언어행위가 중단되었을뿐아니라 결과가 명백하지 못하게 끝난것으로 된다.

우리는 로어통신언어학연구의 기초로 되는 통신적언어행위성립의 전제조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심화시켜 로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